韓國 書院의 政治性과 鄕村機構로서의 性格

Milan Hejtmanek
Seoul National University

머리말

朝鮮時代의 書院制度는 歷史을 把握하는데 多角的인 重要性이 있습니다. 그중에 想思史上, 文化史上, 經濟史上등에 적지 않는 意味도 있고 역시 政治史도 例外되지도 않을 것이다. 特히 西洋人눈으로 볼 때는 잘 알리지 못한 書院의 歷史는 現在의 數 많은 過去의 解釋틀의 長短點 및 限界性을 보다 잘 理解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美國에서 歐羅巴의 影響 덕분에 갖갖이 post-modernism[1](포스트모데른이지므)理論들이 有行하는 가운데 美國式 의 政治理論도 登場하고 political culture theory[2] (政治文化理論), rational choice theory[3](合理的인選擇異論, new institutionalism[4] (新機關主意)--historical institutionalism[5] (歷史機關主意) 包含해서--等 사이에 치열 熾熱한 論爭을 벌이게 되었다. 그래도 항상 너무나 좁은 政治現狀을 說明하는데 努力하니까 決定的 結果가 나오기 어려울 듯하다. 따라서 以後의 西洋에 있어서의 學術的인 發展하기위해서 韓國史가 貢獻하는 豐富한 內容은 看過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周知하듯이 書院制度의 展開는 매우 多樣 서럽고 複雜하다. 그의 政治的인 側面을 分析을 한다면 그 다음의 몇 개의 次元을 系列 할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이런 獨特한 세트가 있었기 때문에 書院制度의 硏究가 相當한 價値가 이라고 생각된다.

1. 朱子學(道學)의 傳統과 理念
2. 支配層階인 士大夫階層의聯關性
3. 地域主意(localism), 屛虎是非等의鄕戰包含
4. 派閥紛爭, 文廟享祀問題를包含
5. 後世의 政治化 (側 先賢의 政治的인 役割)
6. 首都과 地方의 葛藤

---

1) Michel Foucault의 영향은 아직 크다고 본다. E,g, Susanne Hoeber Rudolf, "The Role of Theory in Comparative Politics: A Symposium" in *World Politics*, Vol 48, No. 1, pp. 21-2. Rudolf씨는 심지어 Max Weber는 부분적으로 post-modernist으로 이해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 Political culture theory는 집약적인 비판받으면서 1990대 까지 rational choice theory 반대하는 역할로 흔히 보는 paradigm입니다. Gabriel Almond and Sydney Verba, *The Civic Culture*, Princeton 1963.

3) 현재 미국에서 경제학 및 정치학부의 가정 유행하는 paradigm 인 것 같아면서도 비판자도 적지않다. E.g David Soskice, Robert H. Bates, David Eckstein, "Ambition and Constraint:the Stabilizing Role of Institutions," *Journal of Law, Economics, & Organization*, Vol. 8, No. 3, pp. 547-560.

4) 1990代부터 유행했고 anti-post-modernist anti-rational choice theory 의 핵심중의 하나. E.g. Andrew J. Nathan and Kellee S. Tsai, "Factionalism: a New Institutionalist Restatement," *The China Journal*, No 34, pp. 157-92.

5) Historical Institutionalism는 new institutionalism의파생물이다, 역사의중요성을 주장하면서 기관조직과 정치를 검토한다. E.g., Theda Skocpol, "Why I am an Historical Institutionalist" *Polity*, Vol. 28, No. 1, pp. 103-106.

7. 賜額制度에 따른 王 角地域의 直結的인 關係

Chart 1을 參照하면 볼 듯이 書院制度의 發達은 몇 段階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놀랍지 않게도 各 段階의 內部的政인 展開를 檢討하면 그의 政治性의 짓하는 것은 發見됩니다.

1. 1543-1644 初期段階
書院은 私立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지만 始作부터는 中央勢力과 깊은 關係 맺게 돼었다. 그 이유는 풍기의 縣監인 愼齋 朱世鵬(1495-1554)은 1543에 白雲洞書院을 設立했고 그 후에 退溪 李滉(1501-70)의 申請 通해서 1550에 명종한테서 紹修書院으로 賜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래 때문에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각서원은 中央政治의 흐름을 免할 수 없었다. 특히 1575부터 이러났던 東人 과 西人 사이의 분쟁 이후, 宣祖가 서원운동 부정적으로 간주한 것 같고 一體히 壬辰倭亂이 끝 날 때까지 새로운 賜額을 거부했다.

光海君밑에는 書院에 대한 政策은 露骨的으로 그 時期에 執權勢力인 北人派의 影向을 엿볼 수 있다. 例를 들어서 1609에는 대 스승으로 간주된 南冥 曺植(1501-1572)기리는 書院의 3 군대가 (德川書院, 新山書院, 龍巖書院) 모두 賜額을 내리게 되었다. 이시기부터 또 하나의 書院에 대한 重要한 政治的이 慣例하 확정되었다. 즉 光海君가 首都인 서울에 가까운 位置에 曺植을 配享하는 새로운 書院의 賜額 거부했고 그 후에 書院는 서울에 짓는 것은 금지된 것 같았다. 그의 結果는 朝鮮時代의 書院은 비록 中央勢力과의 關係가 때에 따라서 密接할 수 있었지만, 막상에 일차적으로 地方性의 色彩에 띠고 말게 됐고 17세기 후에 時間에 갈수록 서월의 政治的 힘이 比例的으로 커지면서 書院制度가 全體的으로 부리 해졌다.

仁祖代의 丁卯 丙子 兩胡亂 의 侵入 및 中國의 明나라 滅亡 라는 災殃 생기는 가우데 書院제도에 있어서의 큰 變化도 있었다. 즉 1644부터 賜額에 대한 決定 勿論이고 심지어 새로운 書院의 設立조차 中央政府의 許諾 얻어야 施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政策이 必要性 느꼈던 만큼 정부는 서원이 갈수록 다소 폐단가 있고 부정적인대도 있다고 밑게 된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이후의 심각한 중앙과 지방 사이의 갈등을 示唆하기도 한다.

2. 1644-1741 中期段階
孝宗, 顯宗, 肅宗代는 서원의 한창시대 이라고 할 수 있다. Chart 1, chart 2, 과 chart 4을 參照하면 볼 수 있듯이 이시기에는 書院의 設立과 賜額率이 急增됐고, 地域的으로 特히 慶尙道가 壓倒的으로 書院數가 늘었다. 이런 現狀의 原因으로 몇 개의 要素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지역에 따라서 時期 多少 다를 수 있었지만 대체로 17세기 後半부터는 氏族文化가 本格的으로 發達되는時期이라고 말 할 수 있을 수 있다. 따라서 地域의 士大夫의 鄕村社會의 代表的인 機構中에 하나 인 書院는 有行 해졌다.

두 번째는 大體로 書院을 肯定的으로 보는 顯宗과 肅宗하 禮曹한테 의 直接申請制度가 오리려 그 以前의 道監察使 통해서의 間接制 보다 透明하고 定常했고 各地域의 儒林들은 成功的

으로 申請 可能하게 됐다.

세 번째는 鄕村社會에서 갈수록 사원의, 특히 사액서원의, 有無라는 기준은 重要해졌다. 만약 自己 氏族의 偉大한 祖上, 自己 동네의 著名한 出身을 기리는 賜額書院 없다면 地域體面까지 損害볼 수도 있었다. 때에 따라서 書院통해서 의 鄕戰는 이러날 수도 있었다.

네 번째는 17세기 後半에는 中央에서 地方으로 聯關되는 派閥 싸움이 深刻해졌다. 따라서 不可避한 현상으로 道學의 眞理을 探求 한다고 標榜하는 書院들 까지 그 너무나 世俗的이고 政治的인 影向을 免할 수 없었다.

다섯 번째는 15 世紀 始作하는 儒敎文化의 普及은 17세기에서 加速化 하고 있었고 末端의 地域까지 도달했다고 봅니다.

3. 1741-1871 末期段階

英祖代의 反書院 政策은 (1741에는 新書院의 設立은 一體히 禁止시켰다) 새로운 政治實態을 반영했다. 한편은 파벌정치를 平定하려는 蕩平策의 일부분 볼수도 있지만, 또 한편 首都의 支配層의 눈에는 地方의 書院文化자체 그만큼 그의 魅力과 重要性 잃었을지도 모른다. 門中書院의 형식 통해서 繁榮하는 趨勢도 있었지만, 17世紀의 機關的인 힘을 回復못했고 결국 大院君의 毁撤令을 反駁할만한 勢力 없고 그 書院制度 全體的으로 큰 打擊 받았다.

맺음말

以上과같이 書院의 歷史를 짧게 봐도 몇 가지의 注目을 할 수 있다. 優先은 비록 書院制度 및 書院文化는 어디까지나 地方의 所生이지만 그제도의 推移과 變動을 深度있게 理解하려면 역시 서울의 政治 과 社會經濟史 同時에 硏究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 理由는 中央과 周邊은 恒常 微妙한 均衡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18-19세기의 서울의 발달사를 고려하지 않으면 서월의 毁撤過程을 파악하기 힘들 것 같다. 또한 政治理論上 현재까지의 유행하는 서양의 파라디므(paradigm)통해서 서원의 포괄적인 이해하기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미래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 안아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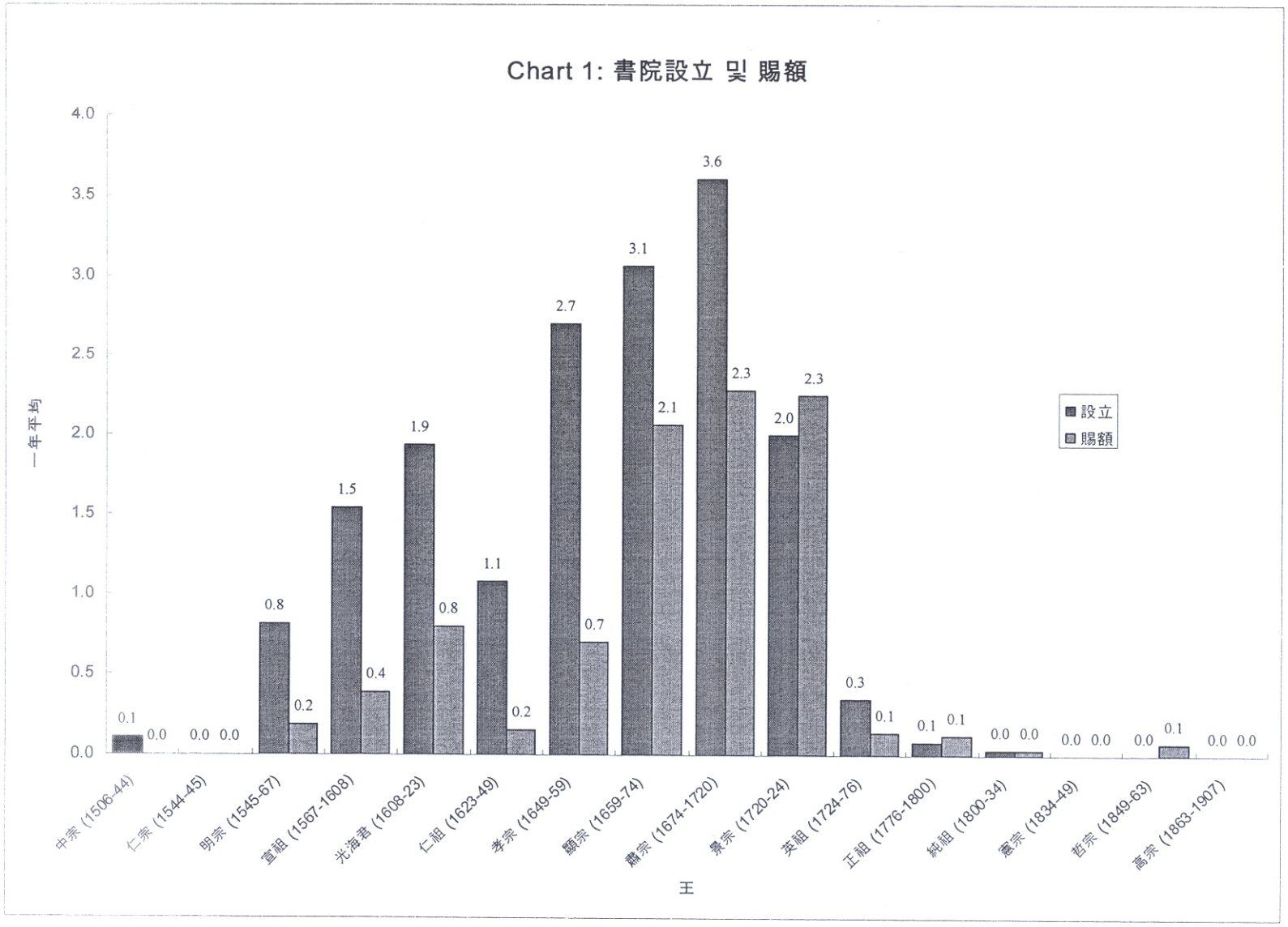
Chart 1: 書院設立 및 賜額
一年平均
4.0
3.5
3.0
2.5
2.0
1.5
1.0
0.5
0.0
0.1
0.0
0.0
0.0
0.8
0.2
1.5
0.4
1.9
0.8
1.1
0.2
2.7
0.7
3.1
2.1
3.6
2.3
2.0
2.3
0.3
0.1
0.1
0.1
0.0
0.0
0.0
0.0
0.0
0.1
0.0
0.0
設立
賜額
中宗 (1506-44)
仁宗 (1544-45)
明宗 (1545-67)
宣祖 (1567-1608)
光海君 (1608-23)
仁祖 (1623-49)
孝宗 (1649-59)
顯宗 (1659-74)
肅宗 (1674-1720)
景宗 (1720-24)
英祖 (1724-76)
正祖 (1776-1800)
純祖 (1800-34)
憲宗 (1834-49)
哲宗 (1849-63)
高宗 (1863-1907)
王

Chart 2: 道別의賜額/非賜額書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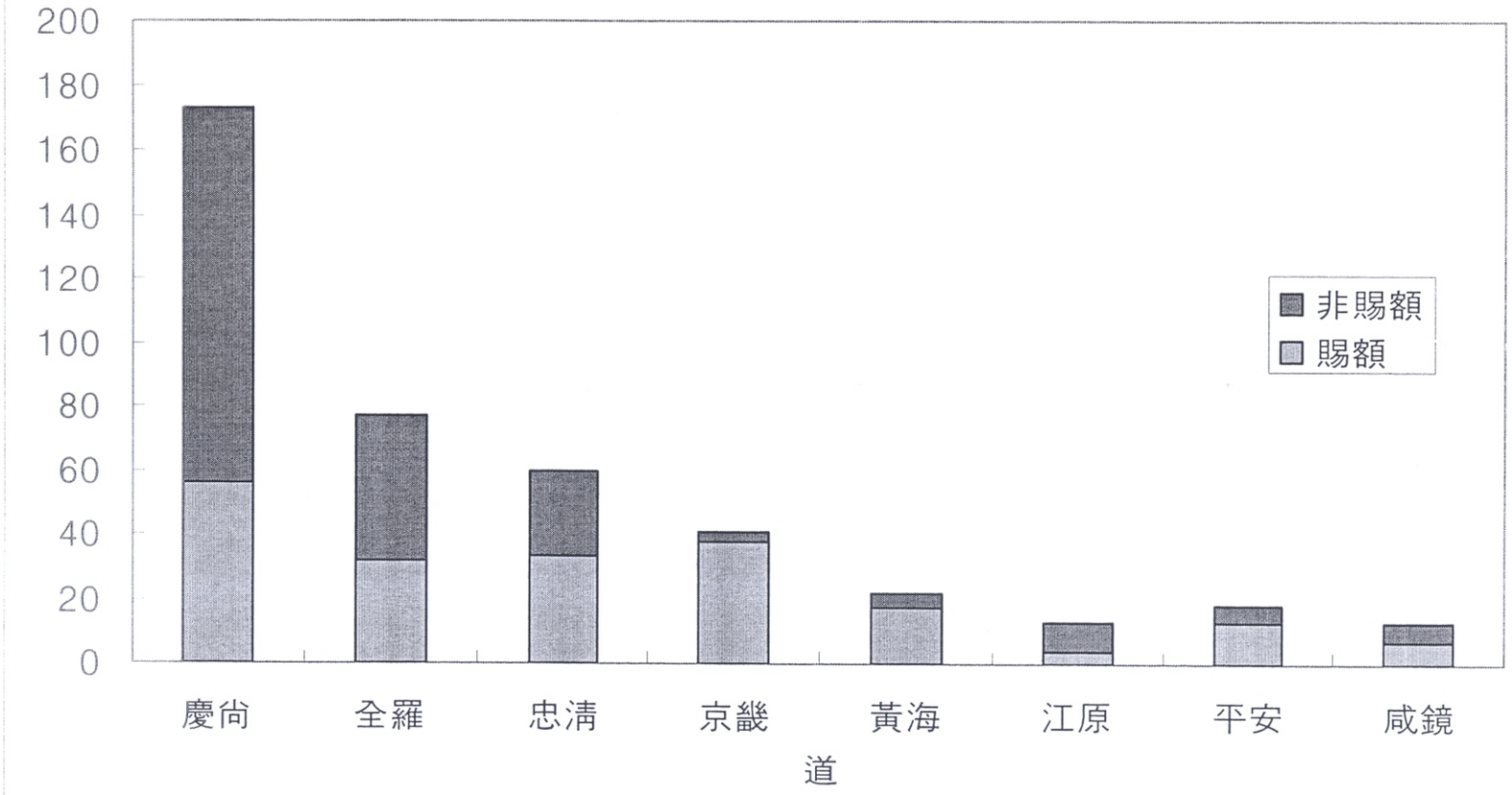

Chart 3: 賜額까지의 期間, 設立年度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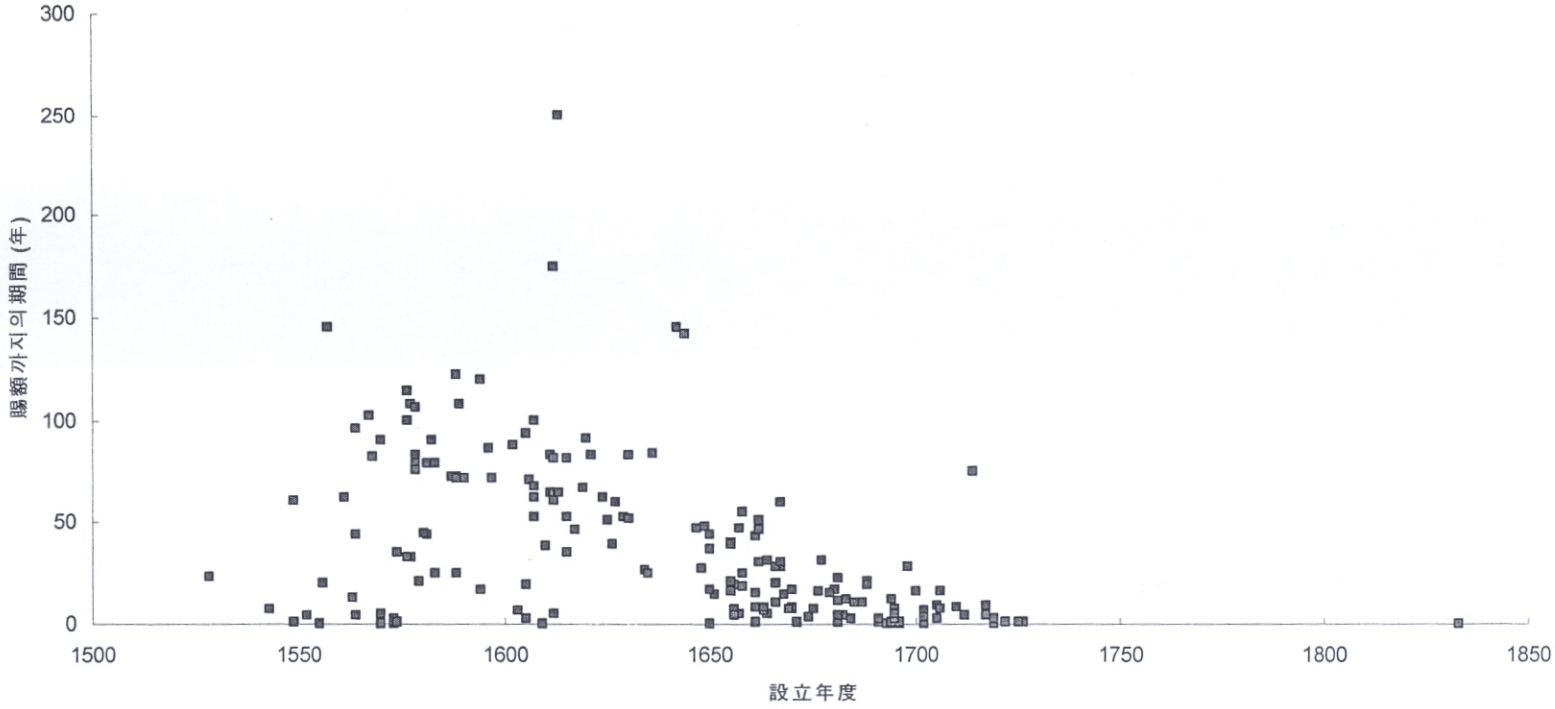

Chart 4: 賜額까지의 期間, 賜額年度順